

남악혜사의 『제법무쟁삼매법문』의 논리구조

— 道智·道種智·一切種智를 중심으로 —

이 병 옥*

I. 서 론

남악혜사(南岳慧思; 515~577)의 생애는 다음의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¹⁾ 제1기 청소년시기는 탄생에서 19세 때까지이다. 혜사는 15세가 되자 출가하여 도를 닦았고, 『법화경(法華經)』과 여러 대승(大乘) 경전을 외우고, 정진하고 고행(苦行)하였다고 한다. 제2기 하남(河南)유학시기는 20세에 귀족계를 받고서 39세 때 영주(郢州)에서 활동하던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세상의 무상(無常)함을 절실히 느끼고 자신과 중생을 위해서 해탈(解脫)을 구하고, 큰 서원을 세워서 신통을 구하고자 하였다. 34세 때 하남(河南)의 연주(兗州)에서 강의를 하다가, 나쁜 비구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할 뻔하였는데, 겨우 목숨을 건졌다. 39세 때는 영주(郢州)에 가서 영주(郢州)의 자사(刺史)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강의했는데, 이 때도 5명의 나쁜 비구가 독살을

* 고려대학교 강사.

1) 佐藤哲英 著 『續天台大師の研究』(百華苑, 昭和 56년, 京都) pp.152-157

그리고 김영길 교수는 혜사의 생애를 6시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것은 佐藤哲英(사또우 데츠에이)가 제시한 2시기를 2시기와 3시기로 구분하고, 佐藤哲英(사또우 데츠에이)가 말하는 3시기를 4시기와 5시기로 구분한 것이다(김영길 「남악혜사의 말법사상에 관한 연구」, p.41참조).

시도해서, 역시 목숨을 간신히 건졌다.

제3기 광주(光州)교화시기는 40세에 광주의 개악사(開岳寺)에 머무를 때 부터 53세 때까지인데, 이는 혜사(慧思)가 남악(南岳)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기간이다. 41세 때 혜사는 대소산(大蘇山)에 머물렀고, 42세 때 그는 광주의 서관읍사(西觀邑寺)에서 대승의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이 때도 나쁜 논사(論師)들이 혜사를 해치려고 하였고, 43세 때는 남정주(南定州)의 자사(刺史)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강의하려고 하였는데, 이 때 많은 나쁜 논사들에 의해서 50일 간이나 음식의 공급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46세 때 당시 23세 이던 천태지의(天台智顛; 538~597)가 대소산(大蘇山)으로 찾아왔다. 제4기 남악(南岳)은거시기는 혜사가 그의 나이 54세 때 남악(南岳)으로 옮겨가서 63세 때 입적할 때까지 기간이다. 이 때는 주로 신이한 이적이 많이 나타나던 시기이기도 하다.

혜사(慧思)의 저술로 알려진 것은 8종류인데, 그것은 『42자문(四十二字文)』, 『제법무쟁삼매법문(諸法無諍三昧法門)』, 『수자의삼매(隨自意三昧)』, 『법화경안락행의(法華經安樂行義)』, 『차제선문(次第禪門)』, 『삼지관문(三智觀門)』, 『입서원문(立誓願文)』, 『대승지관법문(大乘止觀法門)』이다. 이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저술은 4종류인데, 그것은 『제법무쟁삼매법문』, 『수자의삼매』, 『법화경안락행의』, 『입서원문』이고, 『대승지관법문』은 현재 남아 있는 저술이기는 하지만, 혜사의 저술이 아니라고 오래 전부터 의심받아온 책이다.²⁾ 여기서 『입서원문』은 혜사의 자서전의 성격이 강한 저술이고, 『수자의삼매』와 『제법무쟁삼매법문』과 『법화경안락행의』는 혜사의 3부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저술인데, 그 저술시기는 『수자의삼매』, 『제법무쟁삼매법문』, 『법화경안락행의』의 순서일 것으로 추정된다.³⁾ 하지만, 『제법무쟁삼매법문』

2) 佐藤哲英는 『대승지관법문』은 北地 섭론학파의曇遷의 저술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續天台大師의 研究』, 百華苑, 京都, 昭和 56년 p.165).

3) 佐藤哲英 著 『續天台大師의 研究』(百華苑, 昭和 56년, 京都), p.160

문』과 『법화경안락행의』의 저술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화경안락행의』가 『제법무쟁삼매법문』보다 뒤에 저술되었다는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혜사 사상의 윤곽을 그려보자.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4종류로 구분했다. 『법화경안락행의』에서는 성문, 연가, 둔근(鈍根)의 보살, 이근(利根)의 보살을 말했고, 『제법무쟁삼매법문』에서는 하지(下智: 성문), 중지(中智: 연가), 교혜상지(巧慧上智: 보살), 둔각상상지(頓覺上上智: 여래)의 4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천태지의의 화법사교의 선구적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3가지는 차제행(次第行)을 닦는데 비해서, 『법화경』만이 둔각(頓覺)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말법의 시대에 상응하는 쉬운 행을 말하는 경전이다. 따라서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지도론』에 근거해서 『법화경』과 『반야경』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법화지상주의(法華至上主義)를 세우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 또한 혜사의 『제법무쟁삼매법문』에서는 일심삼관(一心三觀)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원융삼제(圓融三諦)의 수준으로까지 발전된 형태는 아니다.⁵⁾

한편,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저술은 『제법무쟁삼매법문(諸法無諍三昧法門)』이고, 이 글의 문제의식은 『제법무쟁삼매법문』을 관통하는 논리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혜사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박사학위논문들을 비롯해서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왔고,⁶⁾ 일본학계에서는 천태사상을

4) 安藤俊雄 『天台學』(平樂寺書店, 京都, 1969년 2쇄), p.19

5) 같은 책, p.24

6) 김영길 「혜사교학의 배경」, 『불교학보』 23집, 1986.

김영길 「혜사의 말법설과 말세행위론」, 『불교학보』 24집, 1987.

김영길 「남악혜사의 말법사상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이 글에서는 혜사의 말법사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혜사의 3부작의 저술시기에 따라 혜사의 말법사상을 추적하면, 『수자의삼매법문』은 말법에 관한 자각이 있기 이전의 저술이고, 『제법무쟁삼매법문』은 혜사의 말법사상이 형성되던 시기의 저술이고, 『법

다루는 저술에서는 대부분 혜사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어서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⁷⁾ 하지만, 눈을 돌려 『제법무쟁삼매법문』에만 국한해서 이 저술의 내용에 숨어 있는 내적 논리에 대해 천착한 선행연구는 적은 편이다.⁸⁾ 이 글에서는 혜사의 선행연구를 수용하고, 이들 연구에서 아직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점, 다시 말해 『제법무쟁삼매법문』의 내용을 관통하는 논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논의 전개순서를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혜사 사상의 기본토대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혜사가 기본토대에 입각해서 회통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혜사가 수행법으로 제시하는 4념처(四念處)에서도 2장에서 말한 기본토대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보려고 한다.

회경안락행의」는 말세에 대한 극복의지가 행동적 삼매로 구체화된 시기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지연 「남악혜사의 법화삼매연구 - 법화경안락행의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오지연 「천태지관이란 무엇인가」(연기사, 1999), 1장, 3절. 남악혜사의 대승돈과과 지관사상.

7) 조양숙(日藏) 「南岳慧思의 修行道論」(立正大學大學院 文學硏究科 박사학위논문, 平成 8년)에는 혜사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저술로 17종류를 말하고 있고, 혜사에 관한 논문과 일반 단행본에 소개된 것으로는 61편을 거론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혜사의 사상을 연구하는 데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연구서로는 島地大等の 『天台教學史』, 塩田義遵의 『法華教學史の硏究』, 安藤俊雄의 『天台學』, 玉城康四郎의 『心把握の展開』, 佐藤哲英의 『續天台大師の硏究』, 新田雅章의 『天台實相論の硏究』 등이다.

8) 혜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서로는 앞에서 말한 佐藤哲英의 『續天台大師の硏究』을 들 수 있고, 혜사의 『제법무쟁삼매법문』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연구는 앞에서 소개한 조양숙(日藏) 「南岳慧思의 修行道論」(立正大學大學院 文學硏究科 박사학위논문, 平成8년)이다. 이 박사학위논문은 양과 질의 면에서 다른 혜사의 연구서를 능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법무쟁삼매법문』의 상권의 내용은 모든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 가르침을 말해주어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 번뇌를 끊고자 하는 것, 좌선을 하고자 할 때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고, 『제법무쟁삼매법문』의 하권의 내용은 4념처로 접근하고 있다.

II. 남악혜사 사상의 기본토대

『제법무쟁삼매법문』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은 도지(道智), 도종지(道種智), 일체종지(一切種智)이다. 혜사는 이 3가지 지(智)로 모든 가르침을 회통하려고 하였고, 혜사가 제시하는 구체적 수행법인 4념처(四念處)에서도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이 3가지 지(智)이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지(智)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지(智)가 생기는 근원인 선정(禪定)에 대해 살펴보자. 선정에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욕계(欲界)의 선정, 색계(色界)의 선정, 무색계(無色界)의 선정이다. 여기서 욕계의 선정은 성문(聲聞)의 선정이라 하고, 색계의 선정은 벽지불(辟支佛)의 선정이라 하고, 무색계의 선정은 여래(如來)의 선정과 보살(菩薩)의 선정이라고 한다.

선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3종류가 있다고 총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 아래의 선정은 욕계(欲界)의 선정이라고 이름하고, 중간의 선정은 색계(色界)의 선정이라고 이름하고, 위의 선정은 무색계(無色界)의 선정이라고 이름한다. 다시, 아래의 선정은 성문(聲聞)의 선정인데 3계를 모두 굽어보는 것이다. 중간의 선정은 벽지불(辟支佛)의 선정이고, 위의 선정은 여래(如來)의 선정과 모든 보살(菩薩)의 선정이다.⁹⁾

이 가운데 ‘여래의 선정’과 ‘보살의 선정’이 가장 높은 경지이고, 이 경지에서 다시 3종류의 지(智)와 혜(慧)가 생긴다고 추론할 수 있다. 혜사가 『제법무쟁삼매법문』에서 명확하게 여래의 선정과 보살의 선정에서 3가지 지혜가 생긴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선정(禪定)에서 지혜(智慧)가 생겨나는 것

9)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장장』 46권, pp.627하-628상). “定有無量，總說三種。下定名欲界定；中定名色界定；上定名無色界定。復次下定是聲聞定，總覽三界；中定是辟支佛定 上定是如來定 及諸菩薩定。”

이므로, 이렇게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3종류의 지(智)가 혜사 사상의 기본토대가 된다. 3종류의 지(智)는 도지(道智), 도종지(道種智)와 일체종지(一切種智)이다.

지(智)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3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도지(道智), 둘째, 도종지(道種智), 셋째, 일체종지(一切種智)이다. 혜(慧)에도 3가지가 있다. 첫째, 도혜(道慧), 둘째, 도종혜(道種慧), 셋째, 일체종혜(一切種慧)이다.¹⁰⁾

도지(道智)는 공(空)을 깨닫는 것이고,¹¹⁾ 도종지는 중생의 소질을 아는 지혜이고, 일체종지는 신통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이다. 이것이 바로 혜사 사상의 기본토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혜사는 선정에 들어가는 것[空을 깨닫는 道智], 도종지(道種智)로 중생의 소질을 관찰하는 것, 일체종지(一切種智)로 온갖 세계에 모두 나타나는 신통을 보여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혜사 사상의 기본토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28상). “智有無量，說有三。一者 道智，二者 道種智，三者 一切種智。慧亦有三，一者 道慧，二者 道種慧，三者 一切種慧。”

11) 道智가 空을 깨닫는 것이라는 표현이 『제법무쟁삼매법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뒤의 내용을 추론하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장의 4년처를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 空, 道種智, 一切種智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空을 깨닫는 것을 道智라고 해석하였다. 이 글은 4년처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앞의 2장과 3장을 도지, 도종지, 일체종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역으로 추적해서 구성된 것이다. 거기에서 『제법무쟁삼매법문』은 완전히 교정되고 정리된 저술이 아니라는 판단, 다시 말해서 미완성의 저술이라고 보고 있는 점도 이런 해석을 하게 한 원인이다. 몇몇 부분에서 한문이 이상하고, 이 글의 다른 주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한자가 중복되는 부분과 탈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판본에 문제가 있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혜사의 의도는 도지, 도종지, 일체종지를 핵심으로 해서, 『제법무쟁삼매법문』을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세(三世)와 10방(十方)의 헤아릴 수 없는 부처가 가르침을 말해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할 때, 먼저 선정에 들어가서 10력(十力)의 도종지(道種智)로 중생의 근기와 성품의 다른 점을 관찰하고서 [중생마다 해당하는 번뇌를] 다스려서 도를 얻는 인연을 안다. [이처럼] 법안(法眼)으로 [중생을] 관찰한 다음에 일체종지(一切種智)로 가르침을 말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일체종지(一切種智)는 불안(佛眼)이라고 이름하고, 모든 색신(色身)을 나타내는 삼매라고도 이름하고, 색신(色身)을 두루 나타내는 삼매라고도 이름한다. 위로 모든 부처의 몸, 보살의 몸, 벽지불의 몸, 아라한의 몸, 모든 하늘세계의 왕의 몸, 전륜성왕의 몸과 모든 작은 나라 왕의 몸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래로는 3도(三途)와 6취(六趣)의 중생의 몸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든 부처의 몸과 중생의 몸이 한 생각 가운데 한꺼번에 등장해서, 앞선 것도 없고 뒤에 나타난 것도 없고, 중간에 나타난 것도 없다. [이처럼] 한꺼번에 가르침을 말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모두 선정바라밀의 공덕(功德)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¹²⁾

혜사는 이런 입장에 서서,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관통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으면, 모든 가르침의 공덕이 그 선정에서 생긴다고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한다면, 우선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삼매의 문(門)을 얻어야

12)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27하). “三世十方無量諸佛, 若欲說法, 度衆生時, 先入禪定, 以十力道種智, 觀察衆生根性差別, 知其對治 得道因緣. 以法眼觀察竟, 以一切種智, 說法度衆生. 一切種智者, 名爲佛眼; 亦名現一切色身三昧; 亦名普現色身三昧. 上作一切佛身・諸菩薩身・辟支佛身・阿羅漢身・諸天王身・轉輪聖帝・諸小王身; 下作三途・六趣衆生之身. 如是一切佛身・一切衆生身, 一念心中, 一時行, 無前無後, 亦無中間, 一時說法, 度衆生, 皆是禪定波羅蜜功德所成.”

한다. 108삼매(百八三昧), 500다라니(五百陀羅尼), 모든 해탈과 큰 자비와 일체종지(一切種智), 5안(五眼), 6신통(六神通), 3명(三明), 8해탈(八解脫), 10력(十力), 4무외(四無畏), 18불공법(十八不共法), 32상(三十二相), 80종호(八十種好), 6바라밀(六波羅蜜), 37품(三十七品), 4홍서원(四弘誓願), 4무량심(四無量心), 마음대로 부리는 신통력[如意神通], 4섭법(四攝法),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가르침의 공덕은 모두 선정에서 생기는 것이다.¹³⁾

Ⅲ. 남악혜사사상의 전개: 모든 가르침을 회통함

2장에서 혜사 사상의 근원은 선정에 들어가서[道智에 해당함] 중생의 소질을 이는 도종지(道種智)를 활용하고, 일체종지(一切種智)로 신통을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 있다고 했는데, 혜사는 이것을 선바라밀(禪波羅蜜)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선바라밀은 깊고 미묘한 선정을 닦아서 번뇌를 끊고, 선정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바라밀의 내용은 도지, 도종지, 일체종지의 내용을 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다시 선바라밀(禪波羅蜜)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있다. 불도(佛道)를 구하기 위해서, 매우 깊고 미묘한 선정(禪定)을 닦고 배워서 품과 마음으로 [선정]을 증득(證得)하고, 모든 번뇌를 끊어 버리고 모든

13)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27하). “夫欲學一切佛法，先持淨戒，勤禪定，得一切佛法諸三昧門。百八三昧・五百陀羅尼・及諸解脫・大慈大悲・一切種智・五眼・六神通・三明・八解脫・十力・四無畏・十八不共法・三十二相・八十種好・六波羅蜜・三十七品・四弘大誓願・四無量心・如意神通・四攝法，如是無量佛法功德，一切皆從禪生。”

신통을 얻으며, 큰 서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이것을 선바라
밀이라고 이른다.¹⁴⁾

위 인용문에서 선정(禪定)을 얻어서 번뇌를 끊는 것은 도지(道智)의 의미
이고, 신통을 얻어서 서원을 세워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도종지(道種智)
와 일체종지(一切種智)의 의미에 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바라밀(禪波羅
蜜)이 도지, 도종지, 일체종지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3장에서 말
하는 내용에서는 주로 도종지(道種智)와 일체종지(一切種智)의 측면이 강조
되어 전개된다. 우선, 도종지의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사홍서원(四弘誓願),
4무량심(四無量心), 4섭법(四攝法), 신통바라밀(神通波羅蜜)이고, 일체종지
의 측면이 강조된 것은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는 18불공법(十八不共法), 10력(十力), 10호(十號)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의
형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8배사(八背
捨), 11지(十一智), 37도품(三十七道品),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
밀, 정진바라밀, 9차제정(九次第定), 천안(天眼)의 신통,¹⁵⁾ 천이(天耳)의 신통
(神通), 타심지(他心智)의 신통, 숙명(宿命)의 신통, 사자분신삼매(師子奮
迅三昧), 초월삼매(超越三昧), 8해탈(八解脫)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단
락을 나누어서 살펴본다.

1. 도종지(道種智)에 속하는 선바라밀(禪波羅蜜)

선정에 들어가서 그 서원을 세운 것은 4홍서원(四弘誓願)이 되고, 중생이

14)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30하). “復次 禪波羅蜜, 有無量名字. 爲
求佛道, 修學甚深微妙禪定, 身心得證, 斷諸煩惱, 得一切神通, 立大誓願, 度一切衆
生. 是乃名爲禪波羅蜜.”

15) 여기서 말하는 天眼의 신통은 初禪, 2선, 3선, 4선(四禪)의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고, 이점은 天耳의 신통, 他心智의 신통, 宿命의 신통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은 4무량심(四無量心)이 된다. 이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증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나서 평등하게 관찰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큰 서원(誓願)을 세웠으므로 [이 때] 선정(禪定)을 4홍서원(四弘誓願)이라고도 이른다. 중생을 건지고자 하므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도종지(道種智)의 청정한 법안(法眼)으로 중생이 좋은 과보(果報)를 받고[是處] 나쁜 과보를 받는 것[非處]을 관찰하는 10력(十力)의 지혜가 생긴다. 이 때의 선정을 4무량심(四無量心)이라고 이른다. 자비(慈悲)로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고통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주고, 증오하고 애착하는 마음을 벗어나 평등하게 관찰한다. 이 때 선정을 자비희사(慈悲喜捨)라고 이른다.¹⁶⁾

다시, 선바라밀은 보시, 애어(愛語), 이익(利益), 동사(同事)의 4섭법(四攝法)으로 전개되고, 또한 큰 자비에 기초해서 신통을 마음대로 나타내는 신통바라밀(神通波羅蜜)로 전개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관찰한 다음에 중생과 일을 같이 하고, [중생이] 응하는 것에 따라 가르침을 말해준다. 이 때의 선정을 4섭법(四攝法)이라고 한다.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익(利益), 동사(同事)를 4섭법이라고 한다. 다시, 큰 자비로 뜻대로 부리는 신통을 모든 색신(色身)에 나타내고 신통의 힘에

16)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30하). “立大誓願故, 禪定 轉名四弘. 欲度衆生故, 入深禪定, 以道種智清淨法眼, 觀察衆生 是處非處十力智. 爾時禪定, 轉名四無量心. 慈悲愍衆生, 拔苦與樂, 離憎愛心, 平等觀察, 爾時禪定, 轉名慈悲喜捨.” 이 인용문에서 4무량심과 자비희사가 중복된 것으로 보아 『제법무쟁삼매법문』은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근거해서 5욕(五欲)에 빠져들어 6도를 두루 다니면서 [중생의] 하고자 함에 따라 중생을 구제한다. 이 때의 선정을神通바라밀이라고 이른다. 또한 [이 때에는] 10방에다 모든 불사(佛事)를 나타내지만, 항상 선정에 머물러 있어서 고요하고 생각[念]이 없다.¹⁷⁾

2. 일체종지(一切種智)에 속하는 선바라밀(禪波羅蜜)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혜사의 견해에 따르면, 자비에 근거해서神通을 일으키고, 이神通에 기초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일체종지(一切種智)이다.¹⁸⁾ 이 일체종지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능력을 의미하는 일체종지이고, 둘째, 수행의 형식 속에 나타나는 일체종지이다.

1) 능력을 나타내는 일체종지(一切種智)

번뇌를 끊고, 과거·현재·미래의 애착의 견해를 끊는 것은 18불공법(十八不共法)으로 나타나고, 천안(天眼)·숙명(宿命)·누진(漏盡)의 지혜로 중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10력(十力)으로 전개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30하). “既觀察已，與其同事，隨應說法。爾時禪定，轉名四攝法。布施·愛語·利益·同事，是名四攝法也。復次 大慈大悲，現如意神通，一切色身；以神通力，入五欲中，遍行六趣，隨欲度衆生。爾時禪定，轉名神通波羅蜜。亦普現十方一切佛事，常在禪定，寂然無念。”

18)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30하). “復次 深大慈悲，憐愍衆生，上作十方一切佛身·緣覺·聲聞一切色形，下作六趣衆生之身。如是一切佛身·一切衆生身，一念心中一時行，無前無後，無中間，一時說法，度衆生。爾時禪定及神通波羅蜜，轉名一切種智；亦名佛眼。” 다시, 깊고 큰 자비로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위로는 시방의 모든 부처의 몸(佛身)과 연각과 성문의 모든 몸의 형상을 나타내고, 아래로는 6도[에 윤회하는] 중생의 몸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든 부처의 몸과 모든 중생의 몸이 한 생각 가운데 한꺼번에 나타나고, 그리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도 없이, 한꺼번에 가르침을 말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 때의 선정과神通바라밀을 一切種智라고 이름하고, 또한 佛眼이라고 이름한다.

다시,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 계율 지키는 것이 청정하고, 깊고 묘한 선정으로 습기를 끊었고, 3세의 모든 애착의 견해를 끊었기 때문에 이 때의 선정을 18불공법(十八不共法)이라고 이른다. 다시, 보살마하살이 3명(三明)의 지혜로 중생을 분별한다. 이 때의 선정을 10력(十力)이라 이르는데, [그 이유는] 중생이 좋은 과보를 받는 것[是處]을 잘 알고, 번뇌가 다했기 때문이다.¹⁹⁾

2) 수행의 형식 속에 나타난 일체종지(一切種智)

일체종지(一切種智)가 수행의 형식으로 다시 나타난다. 우선,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인데, 이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지혜에 근거해서 신통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다시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 모든 존재가 성품이 없기 때문에 한 생각과 한 마음에 만 가지 행과 뛰어난 방편의 지혜를 갖추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일으켜서 [나중에] 부처가 되어 큰 불사(佛事)를 할 때까지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보살은] 총상(總相)의 지혜와 별상(別相)의 지혜를 갖추어서 말하는 것이 막힘이 없고, 신통바라밀을 갖추어서 시방의 모든 부처에게 공양하고, 불국토(佛國土)를 깨끗하게 하고, 중생을 교화한다. 이 때 선정을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라고 이른다.²⁰⁾

19)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30하). “復次 菩薩摩訶薩, 持戒清淨, 深妙禪定, 斷習氣故, 遠離三世諸愛見故, 爾時禪定, 轉名十八不共法. 復次 菩薩摩訶薩, 以三明智, 分別衆生. 爾時禪定, 轉名十力, 善知是處及漏盡故.”

20)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31상). “復次 菩薩摩訶薩, 以諸法無所有性, 一念一心, 具足萬行·巧方便慧. 從初發心, 至成佛果, 作大佛事, 心無所著; 總相智·別相智, 辯說無碍, 具足神通波羅蜜, 供養十方一切佛, 淨佛國土, 教化衆生. 爾時 禪定, 轉名般若波羅蜜.”

이 번에는 선바라밀이 37도품(三十七道品)으로 전개된다. 다라니(陀羅尼)와 계(戒)·정(定)·혜(慧)의 3학(三學)과 8성도(八聖道)를 닦아서 4가지 전도(顛倒)를 깨뜨리고 4가지 진제(眞諦)를 얻는 것이 37도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37도품은 초기불교의 수행덕목이고, 이를 소승(小乘)과 대승(大乘)으로 구분하자면, 소승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혜사가 말하는 37도품은 대승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37도품 중에서도 4념처(四念處)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4념처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이름과 구절이 한 맛이어서 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다 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다시, 수행자가 총지(總持)의 선다라니(旋陀羅尼)와 계(戒)·정(定)·혜(慧)와 8성도(八聖道)로 4가지 전도(顛倒)를 깨뜨려서 4가지 진제(眞諦)를 얻는다. 이 때 선바라밀을 37도품(道品)으로 모든 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 이름한다. 이른바 4념처(四念處), 4정근(四正勤), 4여의족(四如意足), 5근(五根), 5력(五力), 7각지(七覺支), 8성도(八聖道)인데, 이것을 마하연(摩訶衍)이라고 이름한다. 예컨대, 4념처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지혜를 전개한다. 그래서 하나의 신통으로 모든 신통을 나타내고, 하나의 해탈로 모든 해탈을 이루고, 하나의 이름과 구절을 전개해서 모든 이름과 구절에 퍼져나가고, 이와 같은 모든 이름과 구절이 다시 하나의 이름과 구절에 압축된다. [하나의 이름과 모든 이름은] 같은 것이어서 다르지 않다. 이것을 4념처에서 이름과 구절이 통해서 모든 이름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門)이라고 이름한다. 따라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²¹⁾

21)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31중). “復次行者, 總持旋陀羅尼·戒定慧三分·八聖道, 破四顛倒, 獲四眞諦. 爾時禪波羅蜜, 轉名三十七品, 起一切神通.”

그리고 수행의 형식 속에 나타난 일체종지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 보시바라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보살이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고, 그 결과 전륜성왕이 되어서, 널리 중생에게 보시하여 중생의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고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말해주어서 도(道)를 얻게 한다. 하지만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의 매개체인 재물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시바라밀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다시, 보살마하살이 중생을 교화하여 [중생이] 청정한 환희의 믿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모든 성인과 함께, 성인이 되는 하나의 단계와 순서를 세워 세웠다. 그러자 중생이 [이 가르침을] 듣고서 매우 기뻐하여 마침내 의심함이 없었다. 그 때 다음과 같이 원(願)을 하였다. 곧, 선정을 부지런히 닦아서 6신통을 얻고 전륜성왕이 되어서 5도 가운데 들어가고, 10방을 날아다니면서 널리 보시를 행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중생의 하고자 함을 따라서 [그 대상물] 모두 제공하고, 그 뒤에 가르침을 말해주어서 도(道)를 얻게 한다. 비록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법(法)의 보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의 매개물인] 재물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없다. ... 이 때 선바라밀을 단(檀·보시)바라밀이라고 이름한다.²²⁾

所謂四念處·四正勤·四如意足·五根·五力·七覺分·八聖道分, 名爲摩訶衍. 如四念處中說, 轉一切智慧, 以一神通, 現一切神通; 以一解脫, 作一切解脫; 轉一名字語句, 入一切名字語句; 如是一切名字語句, 還入一名一字一語一句, 平等不異. 是四念處字等語等, 諸字入門, 一切佛法盡在其中.”

- 22)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 『대정장』 46권, pp.631중-하). “復次菩薩摩訶薩, 欲教化衆生, 令生清淨歡喜信心故, 與一切聖人, 建立一聖官階位次第, 衆生之得大歡喜, 決定無疑. 爾時誓願勤修禪定, 得六神通, 作轉輪聖王, 入五道中, 飛行十方, 廣行布施. ... 隨衆生欲, 盡給與之, 後爲說法, 令其得道. 雖作如是種種法施, 實無施者, 無財

IV. 남악혜사의 4념처(四念處)에 대한 견해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혜사는 도지, 도종지, 일체종지가 잘 조화되어 있는 선바라밀을 가지고 모든 가르침을 회통하려 하였다. 그리고 나서 혜사는 『제법무쟁삼매법문』의 하권에서 4념처만을 따로 떼어서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실천방법을 말하는 대목에서 다시 도지, 도종지, 일체종지의 맥락이 발견된다.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념처에 나타난 도지(道智)·도종지(道種智)·일체종지(一切種智)

우선, 수념처(受念處)의 설명에서 공(空), 공의 지혜에 근거해서 중생의 소질에 대한 관찰, 그 관찰에 근거해서 신통을 나타내는 말이 등장한다. 이는 4념처를 바라보는 혜사의 관점이 바로 도지, 도종지, 일체종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수념처를 설명하는 곳에서 공(空)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것도 집착할 수 없는 것을 공(空)이라 하고, 이 공(空)도 공(空)한 것이어서 공(空)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의 생겨남과 없어짐이 없는 이치를 관조하는 것이 열반이고, 이 열반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6근과 6진과 6식이 공(空)이다. 구해서 볼 수 없는 것을 공(空)이라 이름하고, 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공(空)도 공(空)하다고 하는데, 공(空)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선바라밀(禪波羅蜜) 중에서 수념처(受念處)가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서, 모든 수(受)가 없는 것이 그대로 열반임을 관조한다. 그러나 열반을 관찰하는 것도 성립

物, 無說無示, 無聽法者. … 爾時 禪波羅蜜, 轉名檀波羅蜜.”

하지 않으니, [그 이유는 열반의 경지에서는 무엇이라 말할]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곧 열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²³⁾

그 다음, 혜사는 공(空)의 지혜에 근거해서 중생의 소질에 파악하는 지혜가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도종지(道種智)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숙명통이 열리어서 이 세상 생명의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을 알고, 고통스러운 과보와 즐거운 과보를 받는 것 등을 모두 알아서, 그것에 맞추어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관조할 때, 처음 배우는 사람도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숙명통(宿命通)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자기 몸이 처음 생겨난 오음(五陰)인 가라라(歌羅邏, 수태하고서 처음 7일 동안의 태아)일 때부터 나고 멀하면서 고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관조한다. 또한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이승지겁의 오음(五陰)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관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념처(身念處)의 천안(天眼)의 힘 때문에 초선(初禪) 기운에 머물러 있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숙명통으로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곳의 수명의 길고 짧음, 고통스럽고 즐거운 과보를 받는 것, 음식과 의복, 종성(種性)과 이름,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 세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국토와 세계, 하고자 하는 성품의 선(善)과 악(惡)을 모두 보고 모두 안다. 현재와 미래의 숙명(宿命)의 인연과 [숙명의] 모든 일을 모두 보고 모두 안다. 과거세(過去世)와 같이, 모든 하늘과 6취(六趣) 중생의 3세의 숙명을 아는 것이 자신의 숙명을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모든 부처와 보살과 연각과

23)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34하). “六根六塵六識空故, 求不可見, 名之爲空; 求亦不得, 名之空空, 亦無有空. 復次禪波羅蜜中, 觀受念處 無生無滅, 無一切受, 卽是涅槃. 觀察涅槃, 亦不可得, 無名字故, 卽無涅槃.”

성문의 모든 숙명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한 생각 가운데 [중생의] 그릇에 맞추어서 원(願)을 일으키는데 [그 원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여 막힘이 없다.²⁴⁾

그 다음, 혜사는 중생의 소질을 파악한 것에 근거해서 신통력을 발휘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는 일체종지(一切種智)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통을 사용해서 중생을 위해서 여러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아귀(餓鬼)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여 아귀의 배고픔을 달래고난 다음에 가르침을 말해주고, 축생(畜生)을 구제할 때는 신통을 사용해서 인간세계와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가르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중생 가운데 자제한 수명을 얻는다. 그래서 [중생이] 감응하는 바에 따라서 [수명의] 길고 짧음이 같지 않다. 중생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몸을 나타내고, 모든 종류의 수명을 받아서, 10방에 있는 3악도(三惡道)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 아귀(餓鬼)를 구제하고자 하면, 수념처(受念處)를 관조해서 초선(初禪) 가운데 머무르고, 뜻과 같이 되는 신통을 사용해서 좋은 음식을 [아귀에게] 제공하여, 아귀의 고통을 그치게 하고, 아귀를 위해서 가르침을 말한다. 축생을 구제하고자 할 때는 수념처를 관조해서 초선에 들어갈 때, 이미 제4선(第四禪)에 들어가고, [다시] 4선에서 일어나 제2선(第二禪)에 머무른다. [그 때] 뜻과 같이 되는 신

24)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34하). “如是觀時，初學能斷一切煩惱。又得一切宿命通。自觀己身現在初生五陰歌羅邏時，生滅不住。亦見過去無量阿僧祇劫五陰生滅。以身念處天眼力故，住初禪中能見。如是宿命神通，一切生處。壽命長短·苦樂受報·飲食衣服·種性名字·生死出沒·國土世界·欲性善惡，悉見悉知。現在未來宿命因緣·及一切事，悉見悉知。如過去世，亦知諸天六趣衆生三世宿命，知己不異。亦復能知諸佛·菩薩·緣覺·聲聞一切宿命，一念心中，稱量盡顯，明了無礙。”

통을 사용해서, 모든 중생들이 축생의 업을 벗어나 인간세계와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축생들을 기쁘게 하고 [축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말한다.²⁵⁾

2. 심념처에 나타난 도지(道智)·도종지(道種智)·일체종지(一切種智)

심념처(心念處)의 설명에서도 도지(道智), 도종지(道種智), 일체종지(一切種智)의 의미가 발견된다. 이것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된다.

다시 보살마하살은 심념처(心念處)를 관조할 때, 모든 선정과 해탈을 배워 얻어서, 뜻과 같이 되는 신통을 일으키고, 큰 서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²⁶⁾

위 인용문의 내용에서 선정과 해탈을 배우는 것은 도지(道智)에 속하고, 신통을 일으키고 서원을 세워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도종지(道種智)와 일체종지(一切種智)에 속한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도지(道智)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본다. 마음은 공(空)해서 주체가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모습을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연(緣)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연(緣)이 아닌 것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조하면

25)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34하). “於一切衆生中, 得自在壽命. 隨其所感, 長短不同. 爲衆生故, 現一切身, 受一切命, 欲度十方三惡道衆生. 欲度餓鬼, 觀受念處, 住初禪中, 用如意通, 施美飲食, 令其苦息, 而爲說法. 欲度畜生時, 觀受念處, 入初禪時, 已入第四禪, 從四禪起, 住第二禪. 用如意神通, 令諸衆生, 離畜生業, 得人天, 令其歡喜, 而爲說法.”

26)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36하). “復次 菩薩摩訶薩, 觀心念處, 學得一切禪定·解脫, 起如意神通, 立大誓願, 度一切衆生.”

신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마땅히 알라! 이 마음은 공(空)하여 주체가 없고, 이름도 없고 명행(名行)도 없으며, 모습도 없다. 그리고 [이 마음은] 연(緣)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연(緣)이 아닌 것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스스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작용이 마음을 관조하는 주체이다. 마음은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니, [그 마음은] 생각 생각마다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관조하라. 그러면 생각 생각을 관조하는 모습조차 얻을 수 없으므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관조하는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다시, 마음의 성품을 관조하면, 마음의 성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마음의 성품도 없고, [마음의] 모습도 없어서, 궁극에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조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비고 고요해져서, 순서대로 선정에 들어가서 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²⁷⁾

그 다음, 도종지(道種智)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이는 타심지(他心智)에 근거해서 천안통(天眼通),宿命통(宿命通), 누진통(漏盡通)을 일으켜서 중생이 어떤 가르침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해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지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해탈을 관조해서 모든 타심지(他心智)의 삼매에 두루 통한다.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他心智]를 활용해서 뜻과 같이 되는[如

27) 『제법무쟁삼매법문』 하(『대정장』 46권, p.636). “當知! 此心空, 無有主. 無名無名行, 無相貌; 不從緣生, 不從非緣生, 亦非自生. 是是名者, 能觀心念. 心念生滅, 觀念念生滅. 觀念念相, 不可得故, 亦無生滅. 如觀我心, 他心亦然. 復觀心性, 無有心性. 無有心性, 亦無相貌, 畢竟無心, 亦無不見心. 如是觀竟, 身心空寂, 次第入禪, 能起神通.”

意] 신통을 일으킨다. 또한 천안통(天眼通)과 숙명통(宿命通)과 누진통(漏盡通)으로 두루 관조하는 경지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모든 신통으로 이미 7각분(七覺分)을 관조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는 지혜의 삼매에 머무른다. 염각분(念覺分)과 택각분(擇覺分)과 정진각분(精進覺分)을 사용해서, 10방에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과 마음의 성품과 하고자 함을 두루 관조한다. 그래서 10력(十力)의 지혜를 활용해서 다음의 사실을 분별한다. 곧, 낱낱의 중생이 무슨 가르침을 감응하면서 듣고, 무슨 음성을 들으며,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해탈의 문(門)에서 해탈을 얻는가 하는 점을 분별한다.²⁸⁾

그 다음, 일체종지(一切種智)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이는 신통을 일으켜서 몸을 이 세상에 두루 나타내고,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가르침을 전해서 모두 해탈하게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각분(喜覺分)의 신통삼매를 사용해서 10방에 있는 6도(六道)의 중생들을 모두 크게 기쁘게 하고, 제각분(除覺分)과 정각분(定覺分)과 사각분(捨覺分)을 사용하고, 뜻과 같이 되는 신통을 활용해서, 색신(色身)을 두루 나타낸다.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말해서 모두 해탈하게 한다.²⁹⁾

28)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36하). “(如是觀竟) 觀諸解脫, 遍一切他心智三昧. 以他心智, 如意神通, 亦入天眼·宿命·漏盡神通遍觀中. 如是諸神通, 已觀七覺分, 住他心智三昧. 用念覺分·擇分覺分·及精進覺分, 遍觀十方一切衆生心心性欲. 用十力智分別之, 一一衆生, 感聞何法, 聞何音聲, 見何色像, 於何解脫門, 而得解脫”(한문에 탈락된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빠진 부분은 보충하고,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번역을 하였다).

29)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36하). “(如是觀竟) 用喜覺分神通三昧, 悉令十方六道衆生, 皆大歡喜; 用除覺分·定覺分·捨覺分; 用如意神通, 普現色身. 上中下機, 隨機說法, 悉令解脫.”

3. 범념처에 나타난 도지(道智) · 도종지(道種智) · 일체종지(一切種智)

범념처(法念處)에서도 도지(道智), 도종지(道種智), 일체종지(一切種智)의 의미가 발견된다. 우선 이것은 다음의 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범념처를 닦을 때, 좌선을 부지런히 하여 오랫동안 닦으면, 모든 선정 · 해탈 · 삼매와 뜻과 같이 되는 신통을 얻고 원(願)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고 맹세한다.³⁰⁾

위의 인용문에서 좌선을 부지런히 하여 오랫동안 닦아서 선정과 해탈을 얻는다는 것이 도지(道智)에 속하고, 신통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願)을 일으키는 것은 도종지(道種智)와 일체종지(一切種智)에 속한다.

그러면, 위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범념처에서 말하고 있는 도지(道智)는 마음의 성품이 생김과 없어짐을 넘어서 있고, 끊어짐과 항상함을 넘어서 있어서, 어떻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할 때 마음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 때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과 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곧 마음의 성품을 관조할 때, 마음의 성품은 나고 없어짐이 없고, 이름과 글자도 없고, 끊어짐과 항상함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근원도 없어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알아라! [이처럼]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는 것도 없고, 또한 마음이라는 이름과 글자도 없는 것이다.³¹⁾

30)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40중). “復次 修法念處, 應勤坐禪, 久久修習, 得一切定解脫三昧·如意神通, 發願誓度一切衆生.”

31)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40중). “卽觀心性時, 心性無生滅, 無名無字, 無斷常, 無始無原, 不可得. 當知! 無心無無心, 亦無心名字.”

그 다음, 도종지(道種智)에 해당하는 대목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중생이 어떤 가르침을 듣고 감동해서 도(道)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는 지혜라고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경(經), 논(論), 율(律)과 그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어떤 가르침을 듣고 중생이 감동해서, 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생이 어떤 가르침을 듣고서 감입하여 도(道)에 들어갈 수 있는지 관찰한다. 경전, 우파제사(優婆提舍: 경전을 풀이한 것), 율(律:毘尼), 논(論:阿毘曇), 보시·계율·인욕·정진·선정·지혜[를 말할 때, 도에 들어가거나], 3독을 막는 가르침을 말할 때 [도에 들어가거나], 4대(四大), 5음(五陰), 12입(十二入)·18계(十八界), 12인연(十二因緣), 4념처(四念處), 4선(四禪), 4진제(四眞諦)[를 말할 때 도에 들어가거나, 가르침을 말하지 않고 곧장 신통을 나타낼 때 [도에 들어가거나], 빨리 깨닫는 경우·늦게 깨닫는 경우·좋은 과보를 얻는 경우·나쁜 과보를 얻는 경우를 말할 때 [도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각기 듣고 감입하는 것이 같지 않고, 모습과 음성과 이름의 차별도 각기 같지 않지만, 모두 성인의 도(道)를 얻는다.³²⁾

그 다음, 일체종지(一切種智)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이는 모든 중생에게 신통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세간의 일을 보여주고,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32) 『제법무장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p.640중-하). “先觀衆生感聞何法, 而得入道. 若修多羅·若優婆提舍·若毘尼·若阿毘曇·若布施·戒·忍辱·精進·禪定·智慧, 若說三毒對治之法·若四大·若五陰·若十二入·十八界·若十二因緣·若四念處·若四禪·若四眞諦; 若不說法, 直現神通; 若疾是遲, 是處非處. 如是各各感聞不同, 色像·音聲·名字差別, 各各不同, 皆得聖道”(“得入道”의 부분이 빠져있다고 보고, 이것을 집어넣고 번역하였다).

모든 중생에게 모든 세간의 일을 보여주어서 구제할 수 있는 자가 [진리를] 볼 수 있게 할 뿐이다.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은 마음쓰는 경지[籌量]를 보지 못한다. 제자의 마음을 관조하고서 가르침을 말해주는 것을 좋은 설법이라고 이른다.³³⁾

4. 신념처에 나타난 도지(道智) · 도종지(道種智) · 일체종지(一切種智)

신념처(身念處)를 설명하는 곳에서도 도지(道智), 도종지(道種智), 일체종지(一切種智)의 의미를 볼 수 있다. 먼저 도지(道智)를 말하는 대목을 살펴보자. 우선, 몸과 호흡이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관조한다. 그러면 이러한 경지는 끊어진 것과 항상한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생기는 것과 없어지는 것을 초월해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표현할 이름과 글자가 없게 된다. 이것을 전체적 모습[總相]의 제법실상(諸法實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관조할 때, [몸과 호흡이] 그림자의 구름과 미세한 바람과 같아서, 모두 비고 고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경지]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항상한 것도 아니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름과 글자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으니 또한 열반도 없다. [이처럼 진리의 모습은] 한 모습이면서 동시에 모습도 없는 것이다. 모든 중생도 이와 같다. 이것을 전체적 모습의 제법실상(諸法實相)이라고 이른다.³⁴⁾

33)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40하). “示諸衆生，一切世事，應可度者，乃得見耳。餘人不見如是籌量。觀弟子心，而爲說法，是名好說法。” 이 인용문에서 “제자의 마음을 관조해서 가르침을 준다”는 대목은 도종지와 일체종지가 섞여 있다.

34)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p.633상-중). “如是觀時，影雲微風，皆悉空寂。無斷無常，無生無滅，無名無字。既無生死，亦無涅槃，一相無相。一切衆生，亦

그 다음, 도종지(道種智)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대목을 살펴본다. 호흡이 공(空)한 것을 관조하고서, 천안(天眼)의 능력이 생기고, 중생이 좋은 과보와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호흡이 생기고 없어지고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공(空)하여 장애가 없는 것을 관조하면, 또한 뜻대로 되는 신통을 얻는데, 먼저 육안으로 증득하고, 다음에 천안으로 관찰한다. 또한 10방과 3세에 존재하는 헤아릴 수 없는 이승지(阿僧祇)의 미세한 물질 등을 볼 수 있고, 또한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이 세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선(善)과 악(惡)의 업보를 보아서, 모두 다 알고 [그 이는 것이] 분명하여 막힘이 없다.³⁵⁾

그 다음, 일체종지(一切種智)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대목을 살펴본다. 앞의 도종지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일체종지의 의미가 제시된다. 그것은 10력(十力)과 18불공법(十八不共法)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몸을 큰 몸으로 나타내고 작은 몸으로도 나타내는 신통을 발휘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10력과 18불공법을 모두 아우른다. 그래서 큰 몸으로 되어서 10방에 두루 가득 차고, 작은 몸으로 되어서 그 미세함은 작은 먼지와 같고, 하나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 내고, 많은 것을 하나로 변화시키고,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만들고, 가벼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변화시킨다. ...

復如是. 是名總相 諸法實相.”

35)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33중). “及觀氣息生滅出入, 空無障礙, 亦能獲得如意神通. 先證肉眼, 次觀天眼. 亦能見無量阿僧祇十方三世微細色等, 亦見衆生生死出沒善惡業報, 皆悉知之明了無礙.”

중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주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말해주어서
[모두] 불도(佛道)에 들어가게 한다.³⁶⁾

V. 결 론

『제법무쟁삼매법문』의 내용은 도지(道智), 도종지(道種智), 일체종지(一切種智)의 3가지 지(智)로 관통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혜사는 이 3가지의 지(智)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회통할 수 있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제시한 4념처(四念處)를 설명한 곳에서도 위의 3가지 지(智)가 다시 나타난다. 이는 3가지 지(智)로 불교의 가르침과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인 4념처를 회통하려고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천태지의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태의 사상도 간단히 보자면, 일심삼관(一心三觀)으로 천태가 제시하는 수행법인 10승관법(十乘觀法)과 여러 가지 불교의 가르침을 회통하려고 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하지관』에서 10승관법을 일심삼관으로 관통하고 있고,³⁷⁾ 『유마경현소』에서는 일심삼관으로 10종류의 3법(三法)을 한 가지로 통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³⁸⁾ 이렇게 보자면, 천태의 사상은 일심삼관으로 여러 가르침을 회통하는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혜사의 사상과 천태의 사상을 비교하자면, 혜사가 말하는 3가지 지(智)가 천태지의에 와서는 일심삼관으로 바뀌고, 혜사가 회통하려는 범위와 천태지의가 회통하려는 범위가 일치하느냐 하는 점이 다

36)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33중). “總攝十力·十八不共法，能作大身，遍滿十方；能作小身，細如微塵，一能作多，多能作一；重能作輕，輕能作重。…衆生所須，盡給與之，然後說法，令入佛道。”

37) 이병욱, 『천태사상연구』(경서원, 2000년) p.440

38) 같은 책, pp.393-394

를 뿐이고, 그 근본정신과 구조에서는 혜사와 천태가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치하는 점이 바로 혜사가 천태지의에게 영향을 끼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혜사가 말하는 3가지 지(智)가 천태지의의 일심삼관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혜사는 심식(心識)을 근본이고, 6식은 가지에 불과하다고 보았고,³⁹⁾ 이러한 심식(心識)은 여래장(如來藏)이고,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고, 진실한 마음이라고 보았다. 이 청정한 마음은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항상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중도(中道)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 이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⁴⁰⁾ 다시 말해, 혜사의 사상에서는 자성청정심과 공(空)을 접목시킨 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천태지의의 일심삼관의 이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마하지관』에서 일념삼천설을 말한 것은 한 마음에 3000가지 가능성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중생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퇴보해서 축생·아귀·지옥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39) 『제법무쟁삼매법문』 하권(『대정장』 46권, p.640상). “六識爲枝條, 心識爲根本. 無明波浪起, 隨緣生六識. 六識假名字, 名爲分張識; 隨緣不自在, 故名假名識; 心識名爲動轉識.” 6식은 가지이고, 心識이 근본이다. 無明의 물결이 일어나면, 緣에 따라서 6식이 생긴다. 6식은 이름과 글자를 빌린 것이어서 分張識이라고 이름하고, 緣에 따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므로 假名識이라 하며, 心識은 動轉識이라고 이름한다.

40) 『제법무쟁삼매법문』 상권(『대정장』 46권, p.628상). “應先觀身本. 身本者, 如來藏也; 亦名自性淸淨心; 是名眞實心. 不在內, 不在外, 不在中間, 不斷不常, 亦非中道. 無名無字, 無相貌, 無自無他, 無生無滅, 無來無去, 無住處, 無愚無智, 無縛無解, 生死涅槃 無一二, 無前無後, 無中間. 從昔以來, 無名字.” 먼저, 몸의 근본을 관조해야 한다. 몸의 근본이란 것은 如來藏이고, 또한 自性淸淨心이라고 이름하고, 眞實心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안에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으며,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항상한 것도 아니고 또한 中道도 아니다. [이것은]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자기자신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으며, 생김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머무는 곳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묶음도 없고 풀어짐도 없으며, 생사와 열반이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며,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도 없다. 과거부터 이름과 글자가 없는 것이다.

여래장사상의 중국적 수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空)사상을 공(空), 가(假), 중(中)으로 구체화해서 수용한 것은 공사상에 대한 중국적 수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그러므로 천태지의 사상의 독자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일념삼천설과 일심삼관의 원형이 혜사의 사상에서 어느 정도 짝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혜사의 사상은 천태의 사상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도지, 도종지, 일체종지, 선바라밀, 4념처, 『제법무쟁삼매법문』, 『법화경 안락행의』, 『수자의삼매』, 일심삼관, 여래장, 공(空).

41) 이병욱, 위의 책, pp.470-471

A Study on Hui-ssu's Thoughts in "The Teaching of Samādhi of no Dispute in all Dharma"(諸法無諍三昧法門)

Lee Byung-wook

In this paper, I will prove that the three prajña(三智) is a point of "The Teaching of Samādhi of no Dispute in all Dharma"(諸法無諍三昧法門). The three prajña is mārga-prajña(道智), mārga-bīja-prajña(道種智), sarva-bīja-prajña(一切種智). Mārga-prajña(道智) is the enlightenment of śūnya(空). Mārga-bīja-prajña(道種智) is the prajña that know the temperament of all living beings. And sarva-bīja-prajña(一切種智) is the prajña that creates the supernatural and relieve all living beings. This three prajña is a foundation of Hui-ssu's thoughts in "The Teaching of Samādhi of no Dispute in all Dharma"(諸法無諍三昧法門).

Hui-ssu harmonizes all buddhist teaching by the three prajña. For this purpose, he present Dhyāna Pāramitā(禪波羅蜜) that includes the three prajña. Dhyāna Pāramitā(禪波羅蜜) is divided two kind. One is Dhyāna Pāramitā(禪波羅蜜) that belongs to mārga-bīja-prajña(道種智), the other is Dhyāna Pāramitā(禪波羅蜜) that belongs to sarva-bīja-prajña(一切種智). The latter is also divided two kind. One is sarva-bīja-prajña(一切種智) that present the capacity, the other is sarva-bīja-prajña(一切種智) that is presented in a form of self discipline.

And Hui-ssu says Catvāri-anupassanā(四念處) that show the three

prajña. Catvāri-anupassanā(四念處) is the method of self discipline, but we can find the meaning of the three prajña in Catvāri-anupassanā(四念處). Thus we know that Hui-ssu harmonizes all buddhist teaching and the method of self discipline by the three prajña. And the three prajña that present by Hui-ssu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formation of Chih-i(智顗)' thoughts.